

광주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

건설발주액 6년 6개월만에 최저 수준 전남은 금속제조·화학제품 생산 활기

통계청 '1월중 산업동향' 발표

지난 1월 광주지역은 자동차부문의 생산감소로 인해 산업활동이 다소 위축됐으나 전남지역은 금속제조업과 화학제품 생산이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건설물량이 동반 감소하면서 1월중 건설발주액이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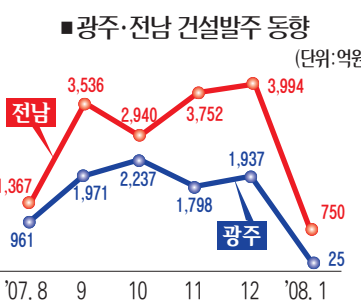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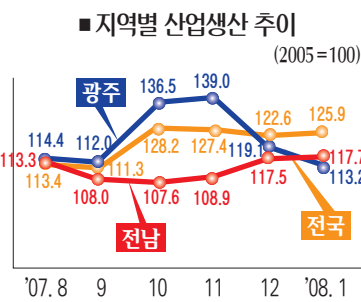
4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중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113.2(2005년=100)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 비해 11.3%

3% 감소했으며 1달새 7.3%나 전체 생산이 줄었다.

이처럼 광주의 생산활동이 둔화된 것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월중 기아차광주공장의 자동차생산은 신차인 'AM'생산라인 증설공사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29.0% 줄었다.

또 자동차생산 감소로 인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생산이 1년 전보다 7.5% 줄어든 것도 광주의 산업생산 둔화에 주된 요인이 됐다.

반면 전남의 산업생산지수는 117.7로, 지난해 1월에 비해 6.5% 증가했다. 이는 선박제조업의 호조속에 철근 및 유가상승에 따른 금속제조업과



화학제품의 생산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은 1월중 화물선과 가스 및 화학운반선 제조가 1년 전보다 53.1% 늘었다. 또 철근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열연내강, 냉연강재, 아연도강판 등 1차금속생산이 9.9% 늘었으며, 화학물질 가공 부문도 6.2%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됐다.

광주의 경우 1월 건설발주액이 25억3천700만원으로, 2001년 7월(19억3천400만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도 1월 건설발주액이 1년 전에 비해 44.6% 감소한 750억원에 그쳐 2006년 7월(697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발주의 감소는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공공부문의 발주가 적은 데다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의 경우 을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진했던 소비도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제철, 제강 기술 세계 최강 입증

연속 주조 日 기록 깨 35% 생산 증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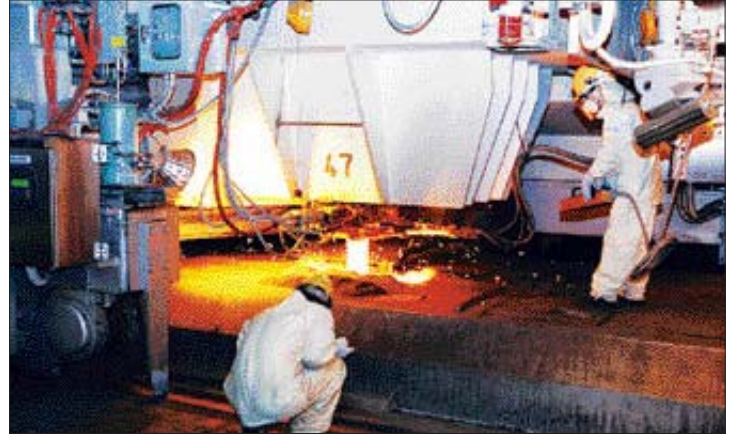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가 최근 세계 최고의 연속 주조속도 달성에 성공, 포스코 제강 기술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제강부 2연주공정 3연주기는 두께 250mm의 주물을 1분당 2.7m까지 연속 주조해, 기존 기록보다 35% 이상의 생산 증대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는 두께 220mm의 주물로 환산할 경우 연속속도는 1분당 3.1m에 달해 일본 JFE제철소가 세운 세계기록인 3.0m를 넘어선다.

연주(연속주조)는 쇳물을 슬라브 등 최종 제품의 중간소재로 냉각·응고시키는 설비로, 이번 신기술 개발로 광양제철소는 3연주기에서만 연간 350만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270t의 쇳물을 27분 이내에 완전 주조하게 돼 연주공정의 고생산성에 맞춰 전 공정인 제강의 쇳물 정련도도 보다 고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강부와 기술연구소 관련 임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설비의 능률



광양제철소 제강부 직원들이 연주기 생산라인에서 쇳물을 냉각·응고시켜 슬라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을 향상시키는 합리화 공사를 실시하고, 주물이 빠져나가는 패스라인(Pass Line)의 롤 배치 최적화 등 포스코 고유의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이에 앞서 광양제철소 2제강공정은 지난해 27일 기준 연속 20일째 100차지(charge) 출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부터 20일째 계속된 1일 100차지 출강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기록으로, 하루 소형 용융차 2만7천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쇳물을 20일 동안 생산하는 양이다. 전로(轉爐)에서 1회 출강한 용강을 래들(Ladle) 일종의 바구

니)에 담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해 슬래브로 만들 때, 1개의 래들을 처리하는 것을 1차지(charge)라 한다.

제강부 관계자는 "광양제철소가 보유한 고유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켜 고급강, 전라강종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아울러 활발한 생산성 향상 통합과제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제강 리드타임을 단축시켰고 연주비를 17% 높여 연간 108억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기아 '뉴페이스 카렌스' 시판

유리피어 스타일 세련된 외관

기아자동차는 외관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뉴페이스 카렌스(New Face Carens)'를 3일부터 시판했다.

'뉴페이스 카렌스'는 ▲역동감이 강조된 크롬 도금 라디에이터 그릴 ▲볼륨감 넘치는 일체형 범퍼 ▲신형 범퍼에 어울리도록 라

운트 처리된 안개등을 적용하는 등 유리피어 스타일의 세련된 외관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뉴페이스 카렌스'의 출시를 기념해 다채로운 고객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격은 LPI모델이 1천515만~2천110만원이며, 디젤모델은 1천980만~2천390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첨단 2단계 개발사업소 개소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4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부지에서 개발사업소 개소식을 가졌다. 첨단2단계 부지는 총 206만1천㎡ 규모로, 2010년 준공 예정이다.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첨단 2단계 개발사업소 개소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4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부지에서 개발사업소 개소식을 가졌다. 첨단2단계 부지는 총 206만1천㎡ 규모로, 2010년 준공 예정이다.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中企 가동률 소폭 상승

평균 가동률 74% ... 전달보다 3%P 올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지난 1월 평균 가동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올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에 따르면 광주·전남 106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74.1%로 전달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광주가 4.7%포인트 오른 72.8%, 전남은 1.9%포인트 상승한 75.1%를 각각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80.3%), 1차 금속산업(78.8%), 기타기계 및 장비(77.5%) 등은 비교적 높은 가동률을 보인 반면 고무·플라스틱(71.5%), 가구(71.3%) 등은 낮은 편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세무서, 법인세 신고 안내 설명회

광주세무서(서장 배춘호)는 사업연도가 2007년 12월말로 종료하는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4차례 설명회를 갖는 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관리에 들어갔다.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3천여개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세무서는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세법인인 소규모,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 신고편의를 제공하

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인세 신고 안내 설명회를 시작한다.

설명회 일정은 ▲10일(광주세무서 대회의실)=자기조정 신고법인, 비영리 법인 ▲11일(화순 도곡농공단지 관리사무실)=화순 도곡농공단지 소재 기업 ▲12일(화순 동면농공단지 관리사무실)=화순 동면농공단지 소재기업 ▲13일(송암공단협의회 회의실)=광주 송암공단 소재기업 등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업들 경기전망 "올해 더 악화"

경총 418개 사업장 조사

기업들이 지난해 말 경영계획을 세우던 때에 비해 경기 전망이 많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경기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8.4%가 지난해 10-12월 경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비해 현재 경기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경기 전망이 악화된 배경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4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물가상승,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28.7%)

를 들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3개월여 전보다 '확대했다'(21.4%)는 답변이 '축소했다'(15.7%)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중소기업은 '축소했다'(24.4%)는 답변이 '확대했다'(20.2%)는 답보다 많아 중소기업이 경기악화 우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용계획은 경기 전망에 더욱 민감해서 계획을 '축소했다'는 기업이 29.6%로 '확대했다'(16.7%)는 기업보다 많았고 특히 중소기업은 '확대했다'는 응답이 15.1%에 그친 반면 '축소했다'는 답변은 32.3%에 달했다. <연말뉴스

구제역 방역 발대식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4일 담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전남 도내 축협방역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구제역 방역활동을 펼칠기로 했다.

이날 방역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제역 재발은 곧 축산업의 붕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가축질병에 철혈동, 농가홍보, 적극적인 소독 활동 등을 통해 가축방역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농협은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체 방역반을 총동원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마시는 豚테반
Big-Ewort
100% 천연 재료 사용
건강과 활력을 위한 최고의 선택

062-528-7796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 한방으로 치료
당당불로단, 허약고진, 건립복음으로 3년 남성유교원 해법

한방으로 치료
www.jiangnan.com.kr